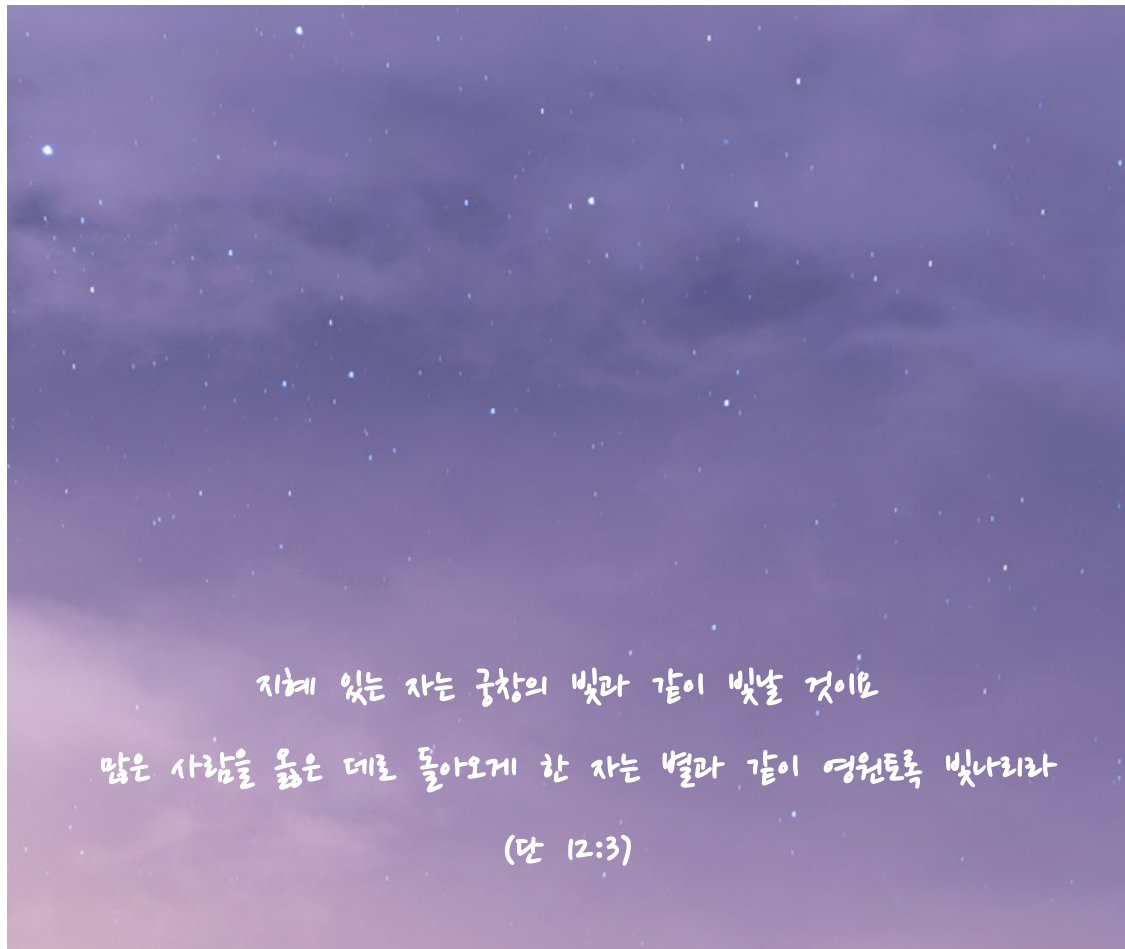


다니엘서



강사:

이름:

1.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1:1-7)

1.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

1) 침략 이유

- 여호야김의 배반

(왕하 24:1)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삼 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 여호야김은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애굽에 붙음
-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디에 붙을지 머리를 굴리며 열강을 의지한 여호야김

2) 침략 시기

- 여호야김이 다스린지 ‘삼 년’이 되는 해(왕하 24:1, 단 1:1)
- 여호야김이 다스린지 ‘사 년’이 되는 해

(렘 25:1)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 다른 연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애굽식 연도 계산법(예레미야)과 바벨론식 연도 계산법(다니엘)의 차이

3) 예루살렘을 침략한 느부갓네살 왕의 두 가지 정책

- 성전 기물을 신전에 보관: 바벨론의 신이 유다의 신인 하나님을 이겼다!
- 유능한 엘리트들 포로로 끌고 감: 바벨론을 섬기는 자들로 세우기 위함

2. 바벨론의 침략(일반 역사)에 대한 신학적 해석

(단 1:2)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 하나님께서 넘기셨음: 하나님의 주권
- 하나님은 왜 넘기셨는가? 언약의 성취: 언약적 저주

(레 26:31-33)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흠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신 28:36, 37)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 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 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렘 25:3-11)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열셋째 해부터 오늘까지 이십삼 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렸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써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써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칠십 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 징계의 목적은 회복!

3. 바벨론 세계에서 살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

- 바벨론의 교육: 언어와 학문
- 바벨론의 혜택: 왕의 음식과 포도주
- 바벨론 식으로 이름을 고침

다니엘(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 벨드사살(벨이여, 보호하소서)

아사랴(여호와께서 도우시다)-> 아벳느고(느고의 종)

하나냐(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 사드락

미사엘(하나님과 같은 분은 누구신가?) -> 메삭

II. 바벨론에서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1:8-16)

1. 뜻을 정함

(단 1:8)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
- 채식과 물 요청

2. 왜 그들은 왕의 포도주와 음식을 거부했는가?

1) 다양한 견해

- 견해1: 채식주의자 - 반론: 다니엘도 고기를 먹었음
- 견해2: 왕의 포도주와 음식은 바벨론 신을 제사할 때 사용된 음식 - 반론: 바벨론 신에게 드린 음식에는 물이나 채소 포함
- 견해3: 구약의 음식 규제 - 반론: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님

(단 10:3)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2) 거부한 이유

- 본문의 단서들

(단 1:5)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삼 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단 1:8)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단 1:13)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단 1:15)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단 1:16)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언약 관계 -> 충성 맹세

(창 31:51-54)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출 24:9-11)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뵈고 먹고 마셨더라

- 뜻을 정함1: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단함
- 뜻을 정함2: 신앙을 지키기 위한 저항 -> 왕의 음식과 포도주라는 특권 포기

(단 1:7)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מִשְׁכֵּן**)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אַדְרִיֶּזֶן**)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단 1:8)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מִשְׁכֵּן**)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3. 열흘 동안의 시험

-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심
- 다니엘의 제안: 열흘 동안 시험

- 시험의 결과: 왕의 음식을 먹는 자들보다 더 좋아보임(1:15) <- 채식주의에 대한 근거 구절이 아님

4. 다니엘과 세 친구를 돌보시는 하나님

(단 1: 17)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단 1:20)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 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 ->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 배 뛰어남
- 바벨론 제국의 지혜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 ->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 메시지

1. 내가 섬기는 주인은 누구인가?
2. 세상은 끊임없이 성도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 도전한다. 성도에게는 신앙적인 저항(결단)을 해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
3. 세상을 향한 배타적인 태도를 경계하되 세상과 구분되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한다.